

금산 인삼 사업 현황과 전망

전 동 호

금산인삼협동조합

우리 금산의 인삼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년 전에 진악산의 관음굴에서 강처사의 현몽에 의하여 지금까지 선조 대대로 이어온 농경산업입니다.

인삼의 재배역사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경작방법이 제대로 정리되어있지 않아 각자의 경작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다행히도 1978년도에 표준인삼 경작방법이 처음으로 보급되어 조합에서 계속 신기술을 경작인들에게 보급한 결과 지금에는 평당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인삼경작 농가에 많은 소득이 되었습니다. 인삼이란 인류의 영약이지만 재배방법 역시 너무나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타작물에 비하여 경작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연작장해를 잘입는 작물로 우리 금산에는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72년도에는 전국 식재면적 500만평중 금산의 식재면적이 200만평으로 40% 이상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점차 면적이 감소되어 전국적인 면적 91년도 770만평, 92년도 760만평중 금산의 식재면적은 91년도 90만평, 92년도 67만평으로 전국대비 8.8%에 불과하지만 연작장해로 인해 많은 인삼경작인들이 타 지역으로 출입 경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백삼유통량이 약 3,000억 시장으로 추산되는데 백삼포 전국 수삼생산 추정량을 보면 약 20,000톤으로 kg당 저년근 수삼수매 평균가격으로 환산 15,000원으로 볼 때 3,000억 시장이 되겠으며 이중 전국적인 백삼검사량이 금산에서 50%이상 검사실적과 타 검사장 물량 역시 대부분이 금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백삼, 수삼, 잠미삼 등이 금산시장에서 80% 이상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어 유통시장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인삼은 타작물보다 고소득 작물로 재배를 하고 있으나 요즘에는 농촌의 인력이 감소되고 고령화 추세로 인력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재값까지 상승되어 갑자기 변해가는 농촌환경에 따라 재배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국인삼까지 밀반입되어 고려인삼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하니 고려인삼의 불신임마저 더욱 심화 소비까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까지 가중되어 삼가가 하락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인삼경작자들이 경작의욕이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침체되어가고 있는 인삼시장을 활성화 하고 삼가를 안정시켜 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1. 삼가안정사업

해마다 생산비는 상승되고 삼가는 하락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1등 50편의 1갑이면 남자인부 2명을 사역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1등 50편 갑에 3명을 사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등 50편의 평균년도별 가격을 보면 90년도 14,900원, 91년도 21,600원, 92년도 현재 14,500원으로 저년도 대비 7,100원, 48.9%나 하락되었습니다. 반면 생산비는 평당 89년도 16,700원, 90년도 17,500원, 91년도 18,900원으로 해마다 약 10% 이상의 생산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삼가하락 비율과 생산비 인상비율을 계산하면 상당한 인삼가가 하락되어 있으며 백삼시장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가안정 차원에서 보면 생산비 및 제반부대 비용을 합해 보면 1등 50편 1갑이 최소한 20,000원 이상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점차 삼가가 하락 생산비에 대비 차이가 많아도 이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이 일부 각 조합을 통하여 백삼담보사업만 하며 삼가 안정사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하였읍니다. 침체되는 인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무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산품인 고려인삼을 활성화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백삼시장이 주종을 이루고있는 금산인삼시장 활성화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농한기금, 담보 사업자금, 수출수매 지원자금 등을 인삼협동조합중앙회와 재무부와 긴밀히 협의 상당금액을 정부에서 융자 계획을 세워 곧 시행되리라 봅니다. 현재 재무부에서도 삼가안정 수매조절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삼가안정 차원에서 저년근 수매에 대하여도 계속 건의하여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2. 고려인삼 수출확대추진 및 홍보

인삼의 수출시장은 주로 동남아시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대만이나 홍콩이 태극삼에 한해서는 주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이 어려운데다가 중국인삼까지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어 고려인삼의 성가는 유지되나 가격경쟁에서 고려인삼의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으며 더구나 세계적인 U.R. 및 각종 농산물 협상관계로 국내인삼까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본 조합에서는 수출확대로 인삼시장을 활성화하고자 89. 6. 20 대한무역진흥공사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역진흥공사와의 협조체제로 세계적인 인삼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 발굴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하와이, 91년 L.A.에서 인삼전시판매 및 홍보를 하므로써 L.A.에서 인삼을 수시로 주문 92년도에도 2회에 걸쳐 수출이 완료되었고 또한 농수산부 주관하에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일본, 대만, 홍콩을 방문하여 일본에서는 인삼제품에 대한 수출상담으로 좋은 반응과 대만에서는 태극삼을 많이 주문받아 금년 제품제조에 돌입, 이대도 인삼에 대한 바이어관리 및 해외홍보를 열심히 하다보면 수출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민간단체 년도별 수출실적을 보면 89년도 355,000 kg에 26,137,000불, 90년도 331,961 kg 22,614,000불, 92년도 227,877 kg 22,396,000불의 수출이 감소되었으나 본 조합에서의 수출실적을 보면 92년도 8. 20

현재 1,938 kg 232,414불의 수출이 되었읍니다. 역시 해외홍보 및 바이어관리를 하면 수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나 홍콩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태극삼에 대하여 품질보증으로 많은 량을 수출하기 위하여 전년도 계획량보다 10배 계획목표량을 설정하고 태극삼 원료수삼을 경작인들로부터 직접수매하여 태극삼을 제조, 전량 수출하고자 합니다.

3. 인삼식품 개발 및 가공공장 설치

우리생활 수준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해왔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적으로 쫓기다보니 식사 역시 간편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류영약인 인삼이 오랜전부터 재배, 제조, 공급, 복용이 되어왔으나 소비성향이 바뀌고있어 현재 일부의 인삼제품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바이어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면 많은량을 수입, 소비시키겠다는 주문이므로 각 나라의 식품문화나 기호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과제로 남아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4. 저년근 수매제도화 정착

몇년전까지만해도 홍삼원료 수삼을 6년근으로 수매 제조하였으나 89년 12월에 인삼사업법이 개정되어 89년부터 처음으로 저년근 홍삼 및 제품원료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매실적을 보면 89년도 147,870 kg, 90년도 81,980 kg, 91년도에는 수매실적이 없읍니다.

이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계획을 세웠으나 쌍방간에 충분한 업무계획 결려로 저년근 수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리다보니,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공사대로 경작인들은 경작인대로 시세변동에 따라 시행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수매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홍삼포식으로 4년근도 식재시부터 저년근 홍삼포로 지정을 받아 채굴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인삼경작인 간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수매하는 제도로 정착해야겠읍니다.

5. 인삼경작인들에 환원사업 추진

인삼경작인들의 생산비 절감 및 농약의 시중가격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년전부터 농약을구입 인삼경작인들에게 공급, 판매하였으나 그동안 품목이 다양치 못하여 시중가격 견제 및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88년 12월 31일 인삼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91년도부터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 시중가격 견제로 농약가격이 안정되었고 조합의 판매가 계속 신장되고 신뢰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감소의 대책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한국인삼연조연구소와 같이 생력기기 및 토양미생물 제제의 환원사업 추진으로써 트랙타부착형 쟁기, 로타베이타, 트랙타, 작관기 및 관리기 부착형기계와 해가림설치기를 비롯하여 일류관리기, 인삼이식기, 인삼, 묘삼채굴기와 토양미생물제제에 대하여 40% 보조환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삼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자재에 대하여도 보조환원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되

겠습니다.

6. 결론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현재 인삼사업의 영구한 발전대책을 수립코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새로운 인삼정책 및 법, 제도 및 인삼사업전반 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맡겨 현재 교수님들이 연구 검토하고 계시므로 이 안이 완결되면 우리 인삼업계는 상당히 변화가 오리라 기대하며 오늘 이런 학술발표회가 영원한 고려인삼의 발전과 이 지구상의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먼훗날까지 우리 후손들한테 영광스럽게 인삼사업을 계승시키기 위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를 금산에서 개최도록 도와주신 고려인삼학회 한병훈회장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관장 및 단체장과 회사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